

정헌율 시장, 먹는 물 시민불안 해소 총력

각 세대에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지시

정헌율 익산시장이 15일 열린 간부 회의에서 식수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질검사를 원하는 세대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먹는 물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익산시도 얼마 전 팔봉동

지역 적수발생 문제로 여전히 식수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다."면서 "식수 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에 대해 확실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질검사를 원하는 세대에 신청을 받아 무료로 수돗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익산시는 팔봉동 지역 적수발생 문제 해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1~2차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헌율 시장은 "마을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이 점차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에게 연일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크게 칭찬하며, "다문화 이주여성 농가 등을 포

함해 소농, 청년농, 고령농의 상품 발굴과 판매를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IT 마을도우미가 충분한 지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지원과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효부정서 관련 병풍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오는 용동면 대조리에 대해 효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도마을 지정 검토하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경찰서 제79대 신임 임상준 서장이 1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군산경찰 모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임상준 신임 군산경찰서장 취임식

군산경찰서 제79대 신임 임상준 서장(52)이 1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신임 임 서장은 "경찰의 기본인무를 군산경찰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고민 하겠으며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상준 서장은 균형발전포럼 참여를 시작으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직원들과의 상견례와 간담회를 가지며 시민안전 확보 총력 대응, 안정적 민생

치안 확보, 공직기강 확립 등을 강조했다.

임 서장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성내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란다"라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하며 군산경찰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 여수 출신인 임상준 서장은 제주청 경비교통과장, 전북청 경비교통과장, 김제경찰서장, 남원경찰서장, 전북청 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윤동욱 군산 부시장, 정부 추경예산 확보 '구슬땀'

국회의원 만나 예결소위 대응 전략 및 사업 당위성 설명

윤동욱 군산시 부시장이 본회의 등 임시국회 남은 일정 논의 중인 국회를 방문해 지역현안 사업 추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윤 부시장이 군산 출신 국회의원과 전북도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정부 추경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국회 상임위에서 예결

위로 상정된 추경예산(안)이 오는 17일부터 심의가 시작될 예정으로 막바지 국경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진행했다.

이날 윤 부시장은 먼저 지역 국회의원인 김관영 국회의원을 만나 정부 추경 확보 중점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진행될 예결소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어 군산출신 국회의원인 김중로, 박주현, 소병훈 의원과 예결위 소속 김광수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현안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결위 심의단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 확보 주요사업으로는 ▲2019 희망근로 지원사업 80.1억원 ▲동백대교 경관조성사업 20억원 ▲수계맥주 특화사업 15억원 ▲위기 대응지역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6억원 ▲향만역사관 건립사업 5억원 ▲육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등이다.

특히 수계 맥주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최초 맥아원료 국산화를 실현하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팜뱅특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당위성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다.

윤 부시장은 "이번 정부 추경은 지난 복구 예산 위주로 편성될 여지가 있어 지역예산 확보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며 "여야 대립이 첨예해져 추경 증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지막 예결 소위까지 정치권 공조를 강화해 한 건의 예산이라도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윤동욱 군산시 부시장이 정부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지원 요청을 하고 있다.

익산시, 환경강 자전거 대여소 운영

익산시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환경강 제방 사수정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혹서기(7월·8월)를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에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한다.

자전거 무료대여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며 1인용과 2인용 자전거, 안전헬멧 등이 준비돼 있고 대여할 때는 신분증이나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 후 1회에 2시간씩 대여할 수 있다.

현재 환경강 자전거 대여소는 혹서기인 8월 25일까지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시민들의 운영 요청이 제기됨

에 따라 혹서기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내년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사무실과 창고에 잠금 장치를 설치해 자전거 등 물품을 보관하고 현지 출장을 통해 대여소 상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9월부터 11월까지 환경강 자전거 대여소 및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장인현 기자

익산시립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익산시립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방학 도서관 문화학교와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도서관 문화학교'는 책을 통해 지혜의 숲으로, '호그와트 마술교실', '책과 떠나는 건축여행', '어린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22개 강좌로 구성됐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다가오는 17일 10시부터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만나는 북트레일러 강좌를 운영한다. 북트레일러(book trailer)란 새롭게 출간된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이라는 뜻으로 수강생들이 모여 책을 선정하고 같이 읽어보며 동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을 거쳐 사고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학생 강좌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운영한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여름방학 독서교실'은 '화페 속 인물'을 주제로 독서와 토론, 다양한 독후활동을 병행한 수업으로 이뤄졌다.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간 운영되며 수강신청은 7월 24일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 익산시장상, 시립도서관장상을 수여한다.

도서관 관계자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됐으니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알차고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어린이자료실(☎ 063-859-7339)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인현 기자

군산시보건소,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가 여름철 폭염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5일 시 보건소(소장 전형태)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예방수칙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에 내원한 일일 온열환자 발생현황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웹 신고로 받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전년도 군산시에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27명으로 열사병 10명, 열탈진 9명, 열경련 6명, 열실신 2명이며, 연령대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가장 많으며 이 중 사망자는 없

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군산시보건소는 폭염대책 기간 동안 안전수칙 소책자를 활용해 취약계층 관리부서 및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고 보건인력 40여명이 직접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폭염대비 건강관리 안전수칙을 교육·홍보하는 등 무더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조절기능이 약해 온열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고열압 등 심열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투석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폭염 환경에 대한 신체적응능력이 낮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